

1 부. 한의사와 독립운동

왜 한의사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을까?

첫째. 광제원 한의사 축출사건 (1906)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된지 2 년 후인 1906 년, 광제원에서 일하던 대다수의 한의사들은 갑작스럽게 일본 헌병대에 의해 쫓겨났다. 노골적으로 한의사들을 내쫓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의사면허 박탈 (1910-1911)

먼저 앞선 표를 보면 1910 년과 1911 년 사이에 <의사> 항목 외에 <의생>이라는 항목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의사의 약 35%만 의사로 인정되고 나머지 65% 1 년만에 의사에서 의생이 되어버렸다. 의생은 의대생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서양의학을 배운 사람들은 의사이고 그동안 수백, 수천년간 동양에서 공부하고 수많은 임상을 통해 전문의 반열에 오른 한의사들 모두가 한순간에 의생(의대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셋째. 의생 면허제도 (5 년마다 의사국시 재시험)

1913 년 11 월 조선총독령 제 102 호. 의생면허

: 한의사 면허는 (서양의사 면허와 달리) 5 년마다 전문의 시험을 다시 쳐야 한다.

넷째.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당시 한의사들은 대다수 한약방을 운영하였기에 약재를 캐기 위하여 산을 다니고 마을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한의사(의원)가 방문했다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오고, 치료를 받으며 이런저런 사람사는 이야기가 오고갔기 때문에 당시 지방에서 활동하던 한의사들은 마을마다 무슨일이 있는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이러한 그들의 직업적 특성은 독립운동가들의 서신 및 군자금 전달, 독립의병 치료 등 다양한 형태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2 부.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정구용(鄭九鎔:1880.10.5~1941.5.5)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2002 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2. 경력

- 항일격문 배포 및 시위 참여
- 주지스님 김연일과 항일단체에 가담 법정사 독립투쟁 참여

3. 요약

1918 년 6 월부터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관리 축척과 독립 쟁취를 위한 항일무력시위를 계획했다. 같은 해 9 월 법천리에 항일격문을 배포하고 시위에 참여할 장정을 모집했다. 1918 년 10 월 5 일 주지 김연일 스님과 함께 군대체제로 조직을 개편한 뒤 일본 주재소(헌파출소)를 습격해 갇혀있는 한인 13 명을 풀어주었으나,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었다.

4. 생애

정구용은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태어나 1918 년 무오년 10 월 7 일, 무오 법정사 (戊午 法井寺) 항일 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법정사 의거는 불교계가 중심이 돼 일으킨 제주 최초 최대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1919 년 3·1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생은 영일군에서 제주도로 건너가 제주 중문면 법정사에서 동향의법정사 주지 김연일과 함께 일본의 침략에 분노하면서 '반일 반외세'를 기치로 삼는 항일 비밀 결사를 1918 년 봄에 결성했다. 이 비밀 결사는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확대한 것이었다.

방주혁(方周赫:1879.3.28~1969.7.23)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미서훈 독립유공자 (아직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함)

2. 경력

- 시종관 전의(典儀)
- 3.1 운동 참여
- 독립 군자금 제공
-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 독립운동가 거처 제공
- 제헌국회 민주당, 민주국민당 정치고문
- 동양의학재단 설립 (현 경희대 한의학과)
- 제 1,2 회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

3. 요약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참봉을 거쳐 시종관 전의 직위에 올랐다. 1910 년 나라를 빼앗기자 관직을 사양했고, 1919 년 3.1 운동 당시 손병희를 도왔다.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이시영의 부탁으로 독립자금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 동대문 경찰서에 끌려서 문초를 받았다.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이들을 도왔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가들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대한민국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 이시영 부통령의 정치고문, 민주당 최고위원 조병옥 정치고문, 민주국민당 정치고문을 역임했고, 오늘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와 전신인 동양의학재단을 설립해 초대 이사를 맡았다. 제 1,2 회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이었으며 오늘날 광복후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정립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인물 중 한명으로 추대된다.

이원직(李元植:1871.9.21~1945.5.3)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1963 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2. 경력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 국태교통연락원
- 임시정부 발행 신문, 주요문서 국내 배포 및 선전
- 독립공채 매매 임무 수행

3. 요약

1910 년 경술국치 후 4 년 뒤 한의사면허(의생면허)를 취득하고, 1919 년 3.1 운동에 참여한 뒤 중국 상해로 건너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참여했다. 임시정부 발행 신문, 주요문서를 국내 배포하고 선전하는 임무와 독립공채를 판매해 군자금 모으는데 탁월한 공적을 세웠다.

4. 생애

일찍이 부친에게서 한문을 배웠다. 40 세가 되던 1910 년 일제에 나라를 강제점령 당하는 경술국치를 보았다. 이때의 충격은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던 거로 보인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다음 의학을 연구해 1914 년 의생면허를 취득했다. 한의사가 된 것이다. 그 후 5 년간 의술 활동에 전념했던 그는 1919 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기밀문서 및 군자금을 전달했는데, 군자금 모금에 진력하면서 임시정부 발행 독립공채 매각에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 그러나 결국 군자금 모금을 위해 부호의 집을 자주 출입하다가 그 활동내용이 일본 경찰에 탐지돼 체포당했다. 이때가 1919 년 6 월이었다. 2 년여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사이 임시정부의 요원과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일제의 잔혹한 고문이 이어졌다. 이원직은 1921 년 8 월 1 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최종 징역 5 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1923 년 6 월에 가석방됐다. 석방된 독립운동가는 곧바로 일제의 요시찰명부에 기록됐다. 갑-을-병-정으로 나누어진 문서에 그들의 이름, 본적, 죄명부터 몇월 며칠 누구와 어디서 만났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이 다 적혔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지는 못했지만, 암암리에 독립운동가들을 도운 기록이 있으며, 1944 년 제 2 차 세계대전 중 미군의 한국 상륙에 대비해 모종의 비밀공작을 추진하다 같은 해 12 월 3 일 용산에 주둔하던 일본군 헌병대에 다시 체포됐다. 이원직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미결수로 수용되었고 잔혹한 고문과 심문조사를 받다 1945 년 5 월 3 일 광복을 3 개월여 앞두고 옥사 순국했다. 이때 그의 나이 75 세, 당시 평균수명과 인구통계학적 비교에 의하면 오늘날 95 세가 넘는 나이에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고문을 받고 사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내

용은 비밀에 부쳐져 일절 발표되지 않았다. 광복 후 약 20 년이 지나 1963 년 대한민국 정부는 이원직 한의사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정환직(鄭煥直:1844.5.19~1907.11.16)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대한제국기 의금부 금부도사, 중추원의관 등을 역임한 의병장.
- 1963 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2. 경력

- 의금부 금부도사
- 중추원의관
- 아들 정용기 의병장 순국후 삼남의병부대 의병장 취임

3. 요약

1905 년 일제의 강권에 의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고종이 정환직에게 밀지를 보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할 것을 권하였다. 그 뒤 관직을 사직하고 아들 정용기(鄭鏞基)로 하여금, 고향에 내려가 의병을 모집하게 한 뒤 서울로 진격하여 황제를 구하고 국권을 회복하도록 하였다

1907 년 10 월 7 일 정용기가 입암에서 영천수비대소속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가 총탄에 맞아 순절하자, 정순기(鄭純基)·이세기(李世紀)·우재룡(禹在龍) 등의 추대를 받아 삼남의병부대 의병장에 올랐다. 그 뒤 군세가 크게 떨치기 시작하자 여세를 몰아 동쪽으로 포항 등지, 서쪽으로 신령 등지, 북쪽으로 청송 등지를 공격하여 일본군 수비대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전투 중 사상 당하는 의병이 속출하자 전의가 크게 떨어져, 이에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각지에 소모군을 파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와 함께 무기와 탄약·군량 등을 준비하며, 국민들의 반일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전념하였다.이 때 병이 들어 신병을 치료하다 일본군 수비대에게 잡혔다. 일본군이 회유하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반일의 뜻을 굽히지 않다 충살형을 당해 순국하였다.

김치보(金致寶:1859.9.17~1941.11.18)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1996 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2. 경력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청년회 회장
- 청년돈의회(靑年敦義會) 조직 및 회장 역임
- 1910 년 성명회(聲明會) 선언서 서명
- 블라디보스토크 자선공제회 회장
- 권업회(勸業會) 통신부장
- 대한인노동회(大韓人勞働會) 회장
- 노인동맹단 단장

3. 요약

1908 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하여 한민회(韓民會) 산하 청년회 회장으로 활동

1909 년 4 월에 청년돈의회(靑年敦義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일하였다. 1910 년 일제의 한국 강점을 규탄하는 성명회(聲明會) 선언서에 서명하였다. 1910 년 12 월 28 일 블라디보스토크서 조직된 자선공제회(慈善共濟會)의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1911 년에는 권업회(勸業會) 통신부장으로 활동하였다. 권업회가 해산된 후에는 『한인신보』 발기회 고문단장으로 활동하였고, 1918 년 대한인노동회(大韓人勞働會) 회장에 선임되었다. 1919 년 3 월 26 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김치보의 집에서 대한노인동맹단 창단식이 열려 김치보가 단장에 선임되었다. 1920 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거행된 3·1 절 축하 기념식에서는 재무부장으로 활동했다. 1920 년 3 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시베리아 동포 사회에 대한 연통제(聯通制) 실시를 추진했는데, 이때 김치보는 부총판(副總辦)에 선정되었다. 김치보는 1920 년 4 월 신한촌 참변 이후 무기 수집, 애국 청년 군사 훈련 등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탈출하여 만주 훈춘(琿春)에서 살다가 1941 년 사망하였다.

강우규(姜宇奎:1859.6.5. ~ 1920.11.29.)

1. 개요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
- 1962 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2. 경력

- 한약방 경영
- 사립학교, 교회설립
- 신흥동 마을 설립
- 독립운동 단체 노인동맹단 활동
- 조선 3 대 총독 사이토마코토 폭탄 의거

3. 요약

가난한 농가의 4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누나 집에서 성장했으며 친형에게 한학과 한의학을 배웠다. 성인이되어 개신교 장로회에 입교해 교회를 설립하고, 흥원 읍내 남문 앞 중심지에서 한약방을 경영해 사업가로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강우규는 이 돈으로 사립학교와 교회를 세워 민족학교와 신학문을 전파하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1910 년 8 월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자 북간도 지역을 돌며 독립운동가 박은식, 이동휘, 계봉우 등을 만나 독립운동 방도를 모색했고, 1915 년 만주 지린성 요하현으로 이주해 한인 동포들을 모아 새로운 마을 신흥동을 설립했다. 이곳에서 광동학교를 세워 청소년들을 가르쳤고, 독립운동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 '노인동맹단'에 가입한다. 1919 년 3.1 운동이 거국적으로 일어났으나 6 월 경부터 점차 열기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제 3 대 조선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기로 결심한다. 9 월 2 일 남대문역에서 미리 파악해 둔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5 시 경 부임식을 마치고 관저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의 마차를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 강우규는 현장을 빠져나가 2 주일간 체포되지 않았으나 9 월 17 일 목격자가 나타나며 친일 경찰 김태석에 의해 체포된다. 1920 년 2 월 25 일 경성지방법원은 강우규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같은 해 11 월 29 일 66 세의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4. 생애

강우규는 우리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후 만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인술(仁術)을 베풀면서 읍내 남문 앞 중심지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렇다. 그는 한의사였다. 30 세가 되던 해 함경남도 흥원으로 이주했고 잡화상을 경영했는데 수완이 좋아 연이은 사업에 성공했다. 그때 국권회복운동과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함경도 일대를 다니던 독립운

동가 이동휘와 운명처럼 만났다. 이를 기반으로 강우규는 교육 계몽운동을 펼쳤는데 읍내에 사립학교와 교회를 세워 새로운 학문을 전파하고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민족의식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다.

1919년 3월 4일 조선인 동포들(훗날 고려인)을 이끌고 만세운동에 앞장선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이동휘 선생의 부친 이승교, 김치보와 박은식 등이 결성한 '노인동맹단'에 가입했다. '노인동맹단'은 46~70세 남녀로 구성된 매우 특이한 독립운동단체였는데 독립운동 1세대에 해당하는 본인들에게 조국의 운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어른'들이었다. 명부에 기록돼 있는 회원만 2천여 명으로 학계에서는 1919년 6월 당시 5천 명 정도가 '노인동맹단'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전체 독립유공자 1만 5천여명 중 33%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였다.

'노인동맹단'은 파리 강회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외교적인 활동에 주력했고, 일부 강경파는 노인단 대표를 경성에 파견해 보신각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기도 했다. 1919년 5월 노인동맹단원 이발(李撥)·정치윤(鄭致允) 등 5명의 대표단이 일으킨 경성 만세시위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강우규는 '노인동맹단'을 대표해 조선총독을 처단하기로 했다. 1919년 7월 러시아인으로부터 영국제 수류탄 1개를 구매하고, 허형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 원산부를 거쳐 경성에 잠입했다. 이 과정에서 한달이 걸렸다.

1919년 9월 2일, 내외 정세와 총독의 동정을 살피던 중,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후임으로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어 부임한다는 것을 알고, 사이토의 내한 당일 현재의 서울역인 남대문 역에서 조선 총독으로 신임된 사이토 마코토를 폭살하기 위해 폭탄을 던졌다. 그가 던진 폭탄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여 신임 총독 사이토를 환영 나온 일제 관헌과 그 추종자들 37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곡곡의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 강우규의 유언

의열투쟁의 본질이 무력을 통해 조국독립의 뜻을 일제와 세계에 전달하려는데 있다면, 강우규의 의거와 그 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 우리 동포와 민족에게, 그리고 일제와 국제사회에 전해진 메시지는 엄청났다. 독립운동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노인에 의한 폭탄 투척 의거라는 점과 당시 강우규가 의거를 결행한 나이(61세) 때문이었다. 놀랍게도 강우규의 거사 후 수

많은 비밀결사대의 창설이 1919년 12월부터 연달아 발생했다. 1920년 초반에만 20여개가 넘는 의열단체가 만주와 북간도에서 탄생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20대 초반이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러한 의열투쟁 방식의 독립운동노선은 이후 신흥무관학교 출신 20대 초반 청년들이 모여 만든 '의열단'과 백범 김구의 '한인애국단' 등으로 이어졌다. 강우규는 마지막까지 자랑스러운 교육자, 한의사,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

#. 별첨 자료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된 독립운동 한의사 URL)

1. 정구용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Merit&mngNo=960715>

2. 이원직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1&pageTitle=Merit&mngNo=6172>

3. 정환직 - 2007년 8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popup=popup&goTocode=20003&mngNo=9548&kwd=%EC%A0%95%ED%99%98%EC%A7%81>

4. 김치보 - 2017년 12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popup=popup&goTocode=20003&mngNo=7549&kwd=%EA%B9%80%EC%B9%98%EB%B3%B4>

5. 강우규 - 1999년 11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https://e-gonghun.mpva.go.kr/user/IndepCrusaderDetail.do?popup=popup&goTocode=20003&mngNo=95&kwd=%EA%B0%95%EC%9A%B0%EA%B7%9C>